日 승려의 제안 "불교도 업데이트 합시다"

후지타 · 야마시타, 〈불교 3.0〉서 불교 발전 컴퓨터 업데이트에 비유



일본 소토슈 종파 소속 잇쇼 후지타와 료도 야마시타 승려는 지난 9월 〈佛教 3.0お 哲學する(『불교 3.0』을 철학하다, 2016)〉서 불교를 컴퓨터 업데이트에 비유, '불교 3.0' 이란 개념을 소개하고 활발한 강연 활동 중이다. 사진은 후지타 승려가 나고야 소우가쿠 사찰 좌선 강좌서 강연하는 모습. 사진출처=The Japan Times

컴퓨터처럼 불교에도 업그레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승려들에 일본 불교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미국 주간지 'The Nation'은 12월 4일(현지시간) 일본 소토슈 종파 소속 잇쇼 후지타(62) · 료도 야마시타(60) 승려의 최근 저서 〈佛教 3.0お 哲學する(『불교 3.0』을 철학하다, 2016)〉서 소개된 '불교 3.0'이란 개념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The Nation'에 따르면 후지타 · 야마시타 승려는 지난 2013년 〈Updateする佛教(업데이트하는 불교, 2013)〉를 공동 집필하며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일본 불교 양상을 비유했다.

두 승려는 저서를 통해 불교의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을 제시했다. '3.0' 버전은 이전 버전의 단점을 극복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면목을 되찾아 꾸준히 수행하는 불교를 뜻한다.

후지타 승려는 "한국 · 중국을 통해 처음으로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시기가 프로그램 1.0 버전"이라며 "이 시기는 원시불교와 독자적인 발전을 해온 탓에 불교 본질을 많이 잃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초기 대승불교 시기 일본 불교는 허무주의에 빠져 승려조차도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승려, 불교 업데이트 주장에
교계선 "신선하다" 호평
대승 · 소승 단점 보완 후
원시불교 '無我' 수행 역설

이어 "'1.0 버전'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불교 2.0' 업데이트가 진행됐다"며 "'2.0 버전'인 소승불교 대중화 시기는 특히 마음 치료에 집중된 기간"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대한 반발로 들어온 소승불교 마음챙김 수행 또한 불교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람들이 마음챙김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아상(我相)만 커지고 괴로움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야마시타 승려는 "단지 걱정을 제거하는 '2.0 버전' 마음챙김 수행은 효과가 없다. 자아상을 지웠을 때만이 비로소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정신세계와 해석 체계를 바꾸고, 걱정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 승려는 불교가 '3.0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 버전의 폐해서 벗어나 완전한 방향으로 일본 불교계가 나아가야한단 주장이다.

후지타 승려는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단순히 고통을 소멸하거나 잊게 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 마음챙김이 아닌 '마음 되돌리기 수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음 되돌리기 수행'은 자아를 강화하는 기존 명상법이 아닌, 자아를 해체하고 각종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원시 불교 시절의 수행을 일컫는다.

한편 후지타 · 야마시타 승려는 현재 좌선 명상 강의와 더불어 승려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 3.0'에 관한 강연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지난 9월엔 청중 100명 앞에서 철학자 히토시 나가이 씨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 젊은 불자들로부터 불교 업데이트 개념에 대해 신선하단 반응을 이끌었다. 이승희 기자

가수 故 레너드 코헨, 30년간 불교 심취

명상과 사찰생활 작품에 많은 영향 미쳐



지난 11월 10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임 유어 맨'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Leonard Cohen · 1934~2016)이 선불교에 심취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TreeHugger

지난 11월 10일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임 유어 맨'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Leonard Cohen · 1934~2016)이 선불교에 심취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인터넷 언론 'Quartz'는 "1994년 레너드 코헨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사찰에 들어가 수행하면서 1996년에 비구로서 삶을 살았다"고 보도했다.

'Quartz'에 따르면 유대인 출신인 코헨은 약 30여 년간 선불교에 심취했다. 20대에 시인과 소설가로 세상에 나와 1956년 시집 〈Let Us Compare Mythologies〉로 등단했고, 1963년엔 소설집 〈The Favourite Game〉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가수로 데뷔한 것은 33살이던 1967년. 이후 50년간 그는 한결같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코헨만의 노래를 발표했다. 사망 직전인 지난 10월 그는 14번째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잔', '아임 유어 맨', '할렐루야', '댄스 미 투 더 엔드 오브 러브', '첼시 호텔 2', '고잉 홈'…. 코헨이 작사 · 작곡하고 부른 노래들은 사랑과 증오, 섹스와 영혼, 전쟁과 평화, 황홀과 절망이 전편에 흐른다. 인간이 주어진 생애를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노래했다.

불교에 귀의한 코헨은 사찰에 머무는 동안 요리와 청소를 하며 일상을 보냈다. 그리고 무아(無我)를 체험하기 위해 명상에 몰입했다.

당시 그는 "나는 반복적인 업무에 몰입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헨의 30여 년간의 선(禪)적인 삶은 그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코헨의 생각과 그의 시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백만 명의 사상가를 낳았다. 그는 밥딜런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유시인이자 가수였다.

한편 코헨 측은 그의 죽음 후 "그는 전설적인 시인이자 작곡가였으며 예술가였다. 우리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존경받던 한 명의 선구자를 잃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한센인 사실상 감금한 오타니파, 이젠 '든든한 지원군'

아사히 신문, 정토진종 오타니파-한센인 요양소 교류 소개



한센인 최고령자인 타바타 아키라(田端明, 97)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방문자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朝日) 신문은 12월 2일자 기사를 통해 정토진종(淨土眞宗) 오타니파(大谷派)와 한센인 요양소와의 교류사를 소개했다.

'한센병과 정토진종 오타니파(大谷派), 요양소에서의 교류 사반세기'란 제목의 이 기사는 종교단체의 선행을 알리는 기사인 것 같지만, 사실 잘못된 역사의 과오를 되짚는 내용이다.

일본정부는 1907년 한센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시키는 '나병예방법'을 제정했다. 법률시행 이후 오타니파는 정부정책에 협력해 1931년 '오타니파 광명회(光明會)'라는 이름의 한센인 요양소를 설립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요양소에 머무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는 말로 한센인들을 회유했다. 하지만 이는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나 돌봄의 목적보단 사실상 강제적인 감금과 다름없었다.

이에 오타니파의 뜻있는 스님들과 시민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한센병 학습 그룹'을 결성, 한센인 국립요양소 나가시마아이세이엔(長島愛生園)을 정기 방문하며 20년 가까이 교류하고 있다. 오타니파는 1996년 나병예방법 법률 폐지를 계기로, 그해 "무비판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용해 한센인을 격리하는데 앞장선 사실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목숨을 잃어도 요양소를 나갈 수 없었던 한센인 3700여명의 유골이 잠든 납골당서 위령제를 열어 넋을 기리는 한편, 환자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21세 때 요양소에 격리된 후 지금까지 줄곧 요양소서 생활하고 있는 타바타 아키라(田端明 · 97) 씨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하고 있다.

1992년 요양소 첫 방문부터 지금까지 참가하고 있는 엔푸쿠지(圓福寺) 주지 스님 가토 히사하루(加藤久晴 · 53) 씨는 "한센병은 옮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센인이 내준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긴장했다"고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한센인들과 친밀해진 가토 스님은 교단의 과거 잘못된 행위와 한센병의 올바른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현재 아이세이엔(愛生園) 요양소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남아 있으며, 평균연령은 85세다. 한센병의 발병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마지막 환자나 다름없다. 주성원 객원기자

하버드대, 불교경전 온라인 무료 강의

간단한 등록절차 후 누구나 이용 가능



하버드대가 개설한 '경전을 통해 배우는 불교' 온라인 강의서 소개된 불교 경전 중 일부. 사진출처=Lion's Roar

불교를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하버드대학교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에 접속해보자.

'Lion's Roar'은 12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불교 온라인 강의 '경전을 통해 배우는 불교(Buddhism Through Its Scriptures)'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강의는 강사와 수강생이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수강생들은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강의 및 보충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강사는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찰스 할리세이(Charles Hallisey) 교수가 맡았으며, 4주차 강의로 구성된다. 할리세이 교수는 불교 경전의 단순한 해석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의 건설적인 학습을 위해 '열린 해석'과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할리세이 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통해 "부처님 생애를 포함해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었던 불교 경전을 다양한 관점서 바라볼 것"이라며 "불교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처럼 최고 경전이 없지만, 더욱 다양한 경전과 역사적 사료가 있다. 이것들을 복수적으로 검토하며, 현대인들의 삶에 불법의 지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강의는 하버드대학교가 개설한 '각 경전을 통해 배우는 세계 종교' 강의 중 3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불상, 법당시공 및 철거(퇴불), 개금, 단청, 풍수 인테리어 등

좋은 인연으로 성실하게 마음에 꼭 드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미텍 대표 윤승민 두손모음



도금 소불 6치 7치 분당 15,000 ~ 21,000원

■ 전시장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67번지
■ 공 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3층 308호 (신길동, 정우벤쳐타운 2)
■ 연락처 : 010-8523-7718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